

## 6/9(목) 느헤미야 묵상 7

### 느헤미야 4:13-2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들여 열심히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 마음 들여

어제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훼방꾼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묵상했습니다. 만약 적들의 공격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면 이들은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마음 들여 일을 했음을 말씀합니다(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은 마음 들여 일을 함으로써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7절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이처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 들여’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 들여’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믿고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파수꾼과 창

유다 백성들은 밤낮 파수꾼을 두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알려주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배치시킵니다(13-14절,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은 성벽이 무너진 취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느헤미야는 군사들을 추가로 보충함으로써 전력을 보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무너진 상처난 부분을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부분 그리고 실패하고 상처난 곳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철저히 보강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점을 미리 대비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취약한 부분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칫 방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싸움은 사실 ‘나와 악한 영들’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자주 실패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세요.” 사실 이러한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노력할테니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해서 싸워주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도 말씀의 원리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약속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 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실력과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때부터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분의 특별한 평안함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개인의 삶 위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각성과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브리스톨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 OMSC 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